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학과	경영학과	이름	양XX
파견국가	미국	파견도시	Edinburg
파견대학	Rio Grande Valley	파견기간	2019년2학기~2020년1학기 (2학기)
귀국여부	귀국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 UTRGV는 멕시코 국경 근처에 위치 해 있습니다. 차를 타고 3~4시간이면 멕시코에 갈 수 있어요. 캠퍼스는 Edinburg, Brownsville, Harlingen로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Edinburg에서 많이 들립니다. 모든 캠퍼스는 멀리 떨어져있어 차로 이동하거나 셔틀버스를 타야 하니 대부분의 캠퍼스에서 많이 듣고, 대부분의 수업들은 Edinburg에서 이루어집니다. 의공학과 계열의 전공 수업들은 Brownsville에서만 열리는 것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수강신청 하기 전에 캠퍼스 위치랑 이동 시간을 잘 계산해보고 결정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캠퍼스는 큰 캠퍼스는 아니지만, 순천향대학교 크기의 캠퍼스보다 약간 작거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의실은 대체적으로 깨끗하고, 교수님들도 너무 친절하시고 다정하셔서 편한 마음으로 주눅들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p>

2019-2학기 수업	<p>본인이 수강한 과목, 각 과목에 대한 평가를 적어주세요.</p> <p>예) 수업내용, 수업방법, 과제, 수업준비, 추천과목, 비추천과목 등</p> <p>저는 Small Group Communication, International Marketing, Personal Branding and Communication, Intro to Sociology, Modern Dance 이렇게 총 5개의 수업을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수업들은 교수님들이 수업 전에 자료를 올려주시고 그 자료로 수업을 진행하는 형식입니다. 간혹 가다가 책이 필요한 수업들도 있습니다. 그런 수업들은 첫 수업을 들으시고 책을 살지 말지 결정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교수님께서 책을 구매하라고 하셔서 모든 책들을 다 구매했지만, 구매한 책 중에 딱 한권만 수업에 필요했습니다. 순차적으로 설명하자면, Small Group Communication은 말 그대로 Small Group 안에서 이루어지는 상황과 Communication의 방법을 이론 적으로 다루는 수업입니다. 저는 첫 학기에 이 수업을 듣는 걸 정말 추천합니다. 책은 교수님이 매 수업시간 전에 올려주시는 자료를 프린트 해가는 형식입니다. 과제량과 퀴즈, 팀플 등 2학기 동안 들었던 강의들 중에 가장 많았습니다. 이 수업은 수업 전에 꼭 예습을 하고 가야 교수님 수업을 100%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습을 안 해가면, 그날의 수업, 과제, 퀴즈 모든 게 다 어려워집니다. 엄청 어려운 과제들은 아니고 팀을 짜서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역할극으로 만들어 발표를 하거나 이론을 영화에 적용하여 에세이를 쓰는 방식이었습니다. 퀴즈는 매 2파트 혹은 3파트가 끝날 때마다 퀴즈를 봤는데, 과제를 성실히 하면 다 풀 수 있을 만큼 어려운 퀴즈들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수업을 처음 들었을 때는 교수님 말이 엄청 빠르시고 다른 수업보다 좀 더 냉정하신 분이어서 현지 친구들과 똑같이 모든 것을 제 시간 안에 수행해야 하는 가장 힘들었던 수업이었지만, Final project가 끝날 때쯤에 어느새 교수님의 말씀을 모두 다 이해하고, 친구들과 팀을 만들고 과제를 수행하고 발표를 하는 것도 문제없이 오히려 쉽고 재미있게 하고 있던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만큼 수업에 적응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현지에서 가장 영어가 많이 늘었던 순간을 꼽으라고 하면 이 수업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만큼 가장 추천 드리고 싶은 수업입니다.</p> <p>International Marketing 수업은 미국에 와서 가장 듣고 싶었던 수업 중 하나 입니다. 이 수업에서는 Marketing의 전체적인 이론을 크게 훑는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시험은 따로 없고 매 3파트가 끝날 때마다 온라인으로 퀴즈를 보는 것으로 진행했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책을 구매하는 것을 추천하셨고 저는 아마존에서 책을 렌트 했지만, 교수님이 수업시간 전에 올려주시는 ppt 파일로 수업을 진행하고, 퀴즈 역시 자료와 수업시간에 나온 내용 안에서 다 출제되기 때문에 책을 따로 구매는 안</p>
----------------	---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구매하셔야 할 것 같다면 첫 수업을 들어보시고 구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 수업에서는 수업의 내용은 사실 한국에서도 대부분 다른 내용이라서 크게 어렵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좋았던 점은 이 수업 역시 팀플이 있었는데, 팀플을 하면서 이 나라 아이들의 수업 분위기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발표를 하면 대부분 수업에서 경직된 분위기 속에서 비즈니스 적인 발표인 것과는 다르게 정말 자유롭고 편한 분위기 속에서 교수님도 함께 참여하는 열린 발표와 수업이어서 인상 깊었고, 저 역시 발표에 대한 편견과 두려움을 가장 잘 극복해낼 수 있었던 수업이었습니다. Marketing에 관심이 있거나 전공자이신 분들은 이 수업을 수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Personal Branding & Communication 수업은 2학기 중 가장 힘들고 후회했던 수업입니다. 강의 명으로 보서는 Branding 수업인 것 같아 신청을 했었지만, 실제 수업에서는 4학년 취준생을 위한 인터뷰 준비와 같은 취업 준비를 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주는 수업이었습니다. 수업시간에 교수님은 PPT 자료를 읽기만 하고 끝내셨고, 과제는 과제대로 많았고, 시험은 따로 없었지만, 사실 당시 취준생이 아니라 그리 유익한 아니었습니다. 그나마 도움이 되었던 딱 한가지는 수업시간에 시험 대체로 job center에 가서 실제로 취업 인터뷰를 해야 하는 것이 있었는데, 영어로 자신의 희망 직업에 대해서 인터뷰를 해본다는 것은 추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수업은 해외취업을 원하시는 분만 들어도 충분한 수업입니다.

Intro to Sociology 수업은 교환학생으로 간 이상 시야를 넓혀보자 하는 마음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던 지역이 멕시코와 가까이 위치해있어, 히스패닉 친구들이 많았고 그래서 그런지 90%의 수업내용들도 멕시코와 관련된 역사 이슈를 다루었습니다. 파견 지역의 친구들을 이해하고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이야기 거리가 늘었다는 점에서는 좋았지만, 다양한 사회를 배우고 싶은 친구들에게는 조금은 지루한 수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문화와 사회를 세세하게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즐겁고 쉽게 들을 수 있는 강의입니다. 시험은 중간중간 퀴즈를 보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정말 제시간에 열심히 공부해서 보고 나오는 그런 시험은 아니고 오픈 북 시험으로 보게 되는데, 교수님의 마인드가 학생들은 서치를 하는 능력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는 주의서서 시험시간에 책, 노트북, 핸드폰으로 서치를 해서 시험을 보는 형태였고, 실제로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외워서 시험을 보는 것보다 더욱 머리에 지식들이 많이 남았습니다. 팀플도 역시 두번 있는데, 팀원들과 주제 하나를 정해서 조사를 하고 그 지식들을

	<p>수업시간에 전달해 주는 방식으로 어렵지 않고 그 지역의 문화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p> <p>Modern Dance 수업은 정말 정말 추천합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전공 관련된 수업 이외에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를 수강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관심 있는 분야 혹은 정말 배워보고 싶은 분야를 전공자 수업에 들어가서 함께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좋았고 행복했습니다. Modern Dance는 발레를 이용한 현대무용 수업이었습니다. Fredic 교수님이 정말 유쾌하시고 밝으신 분이셔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수업을 온전히 잘 즐길 수 있었습니다. 지루한 이론 강의들 사이에 이런 예체능 수업을 하나 넣으면 막막하게 쌓여있는 과제 속에서 기분을 전환해줄 수 있는 시간이 생겨 오히려 다른 강의들까지 즐겁게 잘 수강할 수 있었습니다. 시험은 중간고사는 자신의 포즈의 문제점에 대해 레포트를 작성하여 제출을 하고 기말고사는 수업에 배웠던 동작들을 교수님 앞에서 추는 것으로 부담스럽지 않고 온전히 그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수업이었습니다.</p>
2020-1학기 수업	<p>Ad: Theory & Practice, Writing Cultural Studies, Fashion Design & Pop Culture, Human Resource Management, International Management, Beginning Spanish 총 6개의 강의를 수강했습니다.</p> <p>Ad: Theory & Practice 수업은 미디어 매체에 대한 수업의 비중이 컸던 수업이었습니다. 책은 역시 교수님께서 수업 전에 올려주신 자료로 대체 되었고, 수업은 토론식 수업으로 자신의 경험과 생각들을 자유롭게 말하면 한시간 반이 금방 지나가있습니다. 친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는 시간처럼 재미있던 수업이었습니다. 시험은 퀴즈와 중간고사, 기말고사로 이루어졌는데 모든 것이 온라인, 오픈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Final Project로 실제 기업과 협약을 맺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있었지만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면서 개인 과제들로 진행되었습니다. 과제들은 교수님이 Creative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교수님이셔서 자신이 좋아하는 브랜드를 이미지로 표현하거나 포스터 광고 만들기 등 다양한 창작물을 만드는 과제라 어렵지 않고 즐겁게 하실 수 있습니다.</p> <p>Writing Cultural Studies는 Writing의 스킬을 향상시키고 싶어 수강했습니다. 이 수업은 강의를 많이 열려있어 대부분 원하는 시간대에 강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자신에 대한 에세이와 관심 있는 특정</p>

Pop Culture에 관하여 연구하는 글쓰기를 했습니다. 학교에는 Writing Center가 있어 시간을 미리 예약하면 문장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봐주시고, 수업시간에 교수님과 약속을 미리 잡아 교수님이 전체적으로 피드백을 꼼꼼하게 해주셔서 한국에서는 문법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이지만 실제로는 잘 쓰지 않는 표현들을 맞는 표현으로 알아가고, 자신을 글로 풍성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어 좋았습니다. 이 수업은 많은 교수님들이 강의를 하시기 때문에 첫 수업을 듣고 교재를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Fashion Design & Pop Culture 수업은 마케팅과 패션 쪽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정말 적극 추천합니다. 일단 수업 내용이 전부 패션과 연관되어 있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패션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라 독특한 친구들이 많아 재미있는 수업입니다. 수업시간에는 패션의 용어, 역사, 트렌드 등 정말 패션에 관한 정보를 많이 배울 수 있는 수업입니다. 수업시간에 교수님께서 유명 브랜드의 패션쇼들을 가끔 보여주십니다. 그런 자료들 하나하나가 모두 관심사를 더욱 높이고 내가 고민했던 진로에 대해서 확신을 조금 더 갖게 될 수 있었던 계기였습니다. 과제는 팀으로 진행되는데 다음 수업에 배울 이론에 관하여 질문을 하나씩 만드는 과제와 특정 주제에 관하여 SWOT 분석을 하고 발표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했습니다. 특정 주제는 평소에 쉽게 접할 수 있고 요즘 이슈화 되는 것들이어서 블랙핑크의 SWOT 분석, 일본 걸그룹의 SWOT 분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마지막 Final project는 개인 과제로 진행되었는데, 자신이 티셔츠를 디자인하여 자신의 sns계정에 올려 정해진 수만명의 좋아요를 받으면 점수를 받는 형식입니다. 형식적인 패션에 대한 이론 공부보다 아닌 트렌드를 분석하고 직접 참여도 하는 수업으로 정말 만족스러웠던 수업입니다. 이 수업에서는 책이 꼭 필요했고, 첫시간에 교수님께서 자세하게 알려주시니 첫 수업 이후에 책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Human Resource & Management 수업은 가장 토론 형식으로 진행되는 수업입니다. 수업 하기 전에 교수님께서 과제를 올려주시면 해당되는 전공 서적의 파트를 모두 읽고 분석하는 레포트를 써서 수업시간에 그것을 주제로 토론을 하는 형식입니다. 일단 수업시간에 수업을 하는 게 아닌 100% 토론으로 이루어져서 교수님도 함께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고 학생들과 나란히 앉아 학생의 신분으로 함께 생각을 공유합니다. 처음에는 자료를 읽는 양이 많아 과제를 일주일 내내 나눠서 교박교박 해야 했지만, 많은 양의 자료를 읽다 보니 점점 읽는 속도도 빨라지고 이해력도 높아져 영어실력도 내 생각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것도 한층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수업이었습니다. 토론식 수업을 해보고 싶은

분들에게는 정말 추천하는 수업입니다. 저는 오히려 Writing 수업보다 이 수업에서 Writing 스킬,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자신 있게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스킬 등 자신감과 그 이상의 것들을 너무 많이 얻고 온 수업이었습니다. 경영학과이신 분이시라면 1,2학년 때 배웠던 인사과목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International Management 수업은 정말 말 그대로 세계의 management에 대하여 다루는 수업입니다. 이 수업도 4학년 수업이라 조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교수님의 말이 너무 빨라서 듣는데 적응시간이 조금 걸렸지만, 자료를 함께 보며 공부하면 그리 어렵지는 않는 수업입니다. 정말 다양한 나라에 대한 경제적 분석, 문화 등 다양한 부분을 다루는 수업이기 때문에 흥미로운 수업입니다. 시험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게 되는데 범위 안의 내용을 모두 자세하고 정확하게 알아야 볼 수 있는 시험으로 양도 꽤 많아 공부를 많이 하시고 가셔야 합니다. 과제는 팀 프로젝트로 국가별로 그 국가의 경제적 상황, 문화, 그래서 어떤 국가에 투자를 하면 좋을지에 관하여 조사하고 연구한 것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다양한 국가들의 상황을 생생하게 알 수 있어 유용한 지식은 정말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수업이라 추천합니다.

Beginning Spanish 수업은 정말 기초 스페인어 수업입니다. 위치가 멕시코에 근접해있는 만큼 대부분의 친구들은 First language가 스페인어, Second가 영어입니다.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스페인어에 관심을 갖게 되어 수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페인어 수업은 스페인에서 쓰는 스페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약간 다른 멕시코에서 쓰는 스페인어를 배우는데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정말 알파벳부터 배우는 거라 언어를 배우는 것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이 기회에 스페인어를 배우기 시작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내다 보니 생각보다 스페인어를 쓰는 사람이 너무 많아 꾸준히 배우다 보면 어느 나라에 여행을 가도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새로 사귄 친구들과 룸메이트도 스페인어를 쓰는 친구여서 친구들과 함께 저녁까지 공부하고 시간을 더 많이 보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더욱 더 즐겁게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수업에서는 책이 꼭 필요한 수업이고, 과제는 수업 내용에 맞게 나의 일상루틴을 스페인어로 10문장 이상 쓰기와 같은 일상생활에서 스페인어를 더욱 잘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제들입니다. 온라인 과제도 있어서 언어는 꼬박꼬박 성실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과제도 꼬박꼬박 해야 하는 과제도 주어집니다. 시험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그리고 매 3파트가 끝나면 퀴즈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p><i>외국인 학생을 위한 지원현황</i> 예) 오리엔테이션, 교환학생 참여 프로그램, 담당부서, 담당자명, 상담 프로그램 등</p> <p>UTRGV에 사실 많은 학생들이 가지 않아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운영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막상 가면 교환학생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교수님과 관계자 분들도 많습니다. 개강하기 일주일 전에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그때 캠퍼스 투어를 통해 학교 루트를 알게 됩니다. 교환학생 참여 프로그램 같은 것은 따로 없고 학교에서 하는 농구 경기와 같은 많은 운동 경기들을 친구들과 저녁마다 보러 가는 것이 가장 재미있었습니다. 막상 가면 구체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파견 지역에 가기 전에, 현재 순천향대학교로 교환학생을 온 친구들 중에 파견 갈 학교에서 온 친구들과 미리 친해지면 같은 시기에 파견 국가로 같이 가기 때문에 그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더 많은 친구들도 사귀고 학교에 적응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습니다.</p> <p>학교에 korea club이라고 학생들이 운영하는 한국 동아리가 있는데 친구들도 너무 착하고, 한국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라 함께 어울리면서 다양한 곳도 많이 놀러 가면서 추억을 많이 쌓았습니다.</p> <p>학교에 가면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교수님이 한국 관련 축제도 그 지역에서 많이 주최하시고 한국을 알리려고 노력을 정말 많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교수님과 함께 한국 전등 축제도 나가고 한국 문화 축제도 도와드리고 하면서 사람들이 한국에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 새삼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학교에서 듣는 수업 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어울려 지내면서 다양한 축제에 참여하면서 오히려 더 많은 경험을 하고 느끼고 세상을 이해하는 관점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무조건 K-pop, K-culture처럼 화려한 것이 유명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한국다운 것을 더 관심을 가지고 한국 고유의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저처럼 많은 것에 참여하고 많은 것을 보는 것도 영어공부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p>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	-----------

<p>날씨</p>	<p><i>현지 기후 및 유의점</i></p> <p>8월에 도착을 하게 되면 한국의 여름 날씨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덥습니다. 한여름에는 40도까지 올라가고, 겨울에는 가장 추워야 12도입니다. 얇고 편한 옷을 많이 챙겨가는 게 좋습니다. 사람은 적응의 동물인지라 한국에서 12도는 선선한 날씨이지만 더운 지역에서 지내다 보니 12도가 평소보다 더 춥게 느껴집니다. 두꺼운 후드티, 맨투맨을 몇벌 챙겨가시는 걸로 겨울 준비는 충분합니다. 겨울에 추운 날씨가 항상 지속되는 것은 아니고 어제는 12도였는데 오늘은 30도이고 이렇게 날씨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감기도 조심하세요.</p>
<p>안전</p>	<p><i>현지 안전 상황</i></p> <p>국경 지역에 학교가 있다 보니 저도 지원할 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사람들이 너무 착하고, 학교 캠퍼스 안에는 수시로 경찰들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저녁 늦게 밖에는 안나가는 것이 좋지만, 저녁에 밖에 나갈 일이 있다면 현지 친구와 함께 다니는 것을 추천합니다.</p>
<p>숙소</p>	<p><i>학교기숙사() 홈스테이 () 외부 숙소() 기타()</i> <i>기숙사 이름,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i></p> <p>Unity Hall에서 두 학기를 모두 지냈습니다. 기숙사를 신청할 때 두 학기 단위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한 방에서 계속 지낼 수 있습니다. Thanksgiving day나 Winter break, Spring break 때는 기숙사에 있겠다고 신청을 따로 해놓은 상태에서 지내야 하기 때문에 관련 메일이 오면 잊지 않고 신청해주세요. 숙소는 대체적으로 깨끗한 편이지만, 룸메이트를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저와 비슷한 성격의 룸메이트를 만나 너무도 행복한 일년을 보내고 왔습니다. 기숙사는 한국의 기숙사와는 달리 자유롭고 통금도 없기 때문에 잘 때 혹은 나갈 때 문을 꼭 잠궜주세요. 세탁은 일층 로비에서 할 수 있고 로비에 키친도</p>

	<p>있지만 키친을 이용하려면 주방용품을 개인이 다 구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밀플랜을 이용했습니다.</p>
식사	<p>학교 Meal Plan (<input checked="" type="radio"/>) 학교식당 개별이용 (<input type="radio"/>) 홈스테이 (<input type="radio"/>) 외부식당 (<input checked="" type="radio"/>) 직접 요리 (<input type="radio"/>) 기타 (<input type="radio"/>)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밀플랜은 주에 몇번, 혹은 한학기에 몇번, 무제한으로 자신이 선택하여 학기 전에 결제를 해주셔야 합니다. 저는 주에 10번을 먹는 것을 택했고 그렇게되면 dining hall에서 먹는 학식 10번에 student union에서 한학기에 100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Dining hall은 뷔페식 학식으로 정해진 시간에 아침, 점심, 저녁을 이용할 수 있지만 공휴일에는 쉬기 때문에 외부식당을 이용했습니다. Student Union 안에는 다양한 식당들이 있습니다. 피자헛과 같은 다양한 브랜드 음식이 있어 학생증에 돈을 충전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Chick-fil-A라는 햄버거 브랜드가 있는데 spicy chicken meal 이랑 오레오 셰이크 꼭 드세요!! 너무 맛있습니다 !!.</p> <p>주에 10번인 밀플랜을 하게 되면 사실 일주일 내내 dining hall을 이용하는 것은 금방 질리기 때문에 전부 사용하지는 않고 학교 밖에 나가면 걸어서 10분 거리에 월마트와 다양한 식당들이 엄청 많습니다.</p>
교통	<p>통학방법, 시내교통, 주요도시 이동 관련</p> <p>텍사스는 너무 커서 대중교통이 우버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Edinburg에서 McAllen으로 가는 버스가 있기는 한데 대부분 현지 친구들의 차를 타고 다녀서 버스를 이용해 본 적은 없습니다. 현지 친구들은 대부분 차를 가지고 있으니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함께 같이 다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p>

--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왕복 180만원 + 돌아오는 편도 370만원 =총	코로나로 인해 예정되어있던 학기 끝나고의 여행이 취소되어 귀국 비행기를 한번 더 구매해야 했습니다. 그 당시 비행기 값이 두배로 올라 항공료에 많은 돈을 소비했습니다. 학기를 지내다 보면, 끝나고 예정치 않던 친구들과의 여행이 생길 수도 있고 하니 편도로 비행기를 끊는 것이 좋습니다.
Fees	없습니다.	
보험료	\$1130/semester *2 = \$2260 (약 269만원)	해당 학교에서 보험을 정해주고 신청해주기 때문에 사이트에서 돈만 지불하면 됩니다. 저희학교는 꼭 학교에서 지정해준 보험을 들어야합니다.
숙소	Unity Hall Double \$2120/semester *2 = \$4240 (약 504만원)	
식비	10 Meals/Week + \$100 Dining Dollars \$1213/semester *2= \$2426 (약 289만원)	

교통비	0	친구 차를 타고 다녔기 때문에 따로 들지 않았습니다.
책값	약 \$427 (약 50만원)	새 책을 구비하는 건 너무 비싸요. 가능한 렌트를 하세요! 사면, 무거워서 귀국할 때 버리고 와야 합니다. 책을 막상 사도 한번도 펼치지 않아도 되는 수업들도 있기 때문에 본 첫 수업이 시작한 후에 강의를 들어보고 사는 것을 추천합니다.
기타1	Winter Break 여행경비(Texas 여행) 약 \$1263 (약 150만원) Spring Break 여행경비 (Florida, Miami 여행) 약 \$1680 (약 200만원) =\$2943 (약 350만원)	비행기 말고 버스가 저렴해서 버스와 우버를 이용했습니다.
기타2	용돈 매달 60만원 $60 \times 8 = 480$ 만원	친구들과 차를 렌트해서 로드트립으로 갔기 때문에 저렴하게 갔습니다.
합계	22,920,000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미리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분량 자유)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분량 자유)

출국 하기 전에는 약 일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가보니 적응하느라 한 학기는 금방 지나가고 나머지 학기에 이제 적응해서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할 때 즈음에 귀국을 하는 날이 왔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세월 중에 일년이 가장 빠르게 흘러간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엔 영어를 쓸 수 있는 환경에서 영어를 공부하고 싶어서 가기로 결정한 마음이 가장 컸지만, 영어도 많이 늘었지만 그 생활 속에 스며들어 그 생활 속에서 적응하는 방법을 배운 것이 가장 컸습니다. 어느 한 수업시간에 교수님께서 다양한 나라에 가서 여행을 하고 시각을 넓히려는 것은, 큰 것을 보고 오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상황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을 기르고, 어떠한 사람을 마주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라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어쩌면 교환 생활 중에 그 이야기를 들어 더욱 깊이 다가왔고, 한국에 돌아와보니 남는 것은 그 곳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지낸 추억들만이 남아있습니다.

처음에는 식당에서 마시고 싶은 음료수 하나 주문하는 것이 부끄럽고 두려워 입을 여는 것을 꺼렸지만, 점점 익숙해지고, 나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발음 같은 부분에서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나니, 점점 더 적극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영어가 놀라울 정도로 향상된 것은 아니지만, 아는 것을 더욱 자신 있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택한 학교에 가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환경들을 마주치게 됩니다.

처음에는 다른 문화라서 그런 거라 생각했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냥 같은 공간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다양한 사람들을 마주할 때 그 속에서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 돌아왔고, 귀국 후에 한국에서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학교 수업 이외에 다양한 것을 체험하고 소통을 통해 배운 것들입니다. 교환학생을 간다고 해서 무조건 영어 공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들을 가지고 왔으면 합니다. 귀국해서 돌이켜봐도 그리운 것은 공부를 했던 그 이외의 추억들이니깐요.

그래서 그것들이 너무 좋았고 그리워, 저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회사로 인턴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어를 한다는 것은 나의 커리어가 하나 더 추가된다는 점도 있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 보다 다른 시각으로 더 잘 볼 수 있다는 소중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교 4년의 생활 중 교환학생을 준비하면서 힘들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도 많았지만, 그 노력들이 있었기에 쉽게 얻지 못하는 값진 기억들을 평생 안고 살아갈 수 있어 그 추억들이 앞으로의 생활에 진통제 역할을 해줄 것 같습니다.